

2016년 1학기

여성학

경상관 02310호

전지구화와 여성: 국제노동분업과 여성이주

I. 이주 현황과 이주의 여성화

- * 전 세계 이주 인구: 약 2억 1000만 명(ILO, 2010)
- * 한국 체류 외국인: 144만여명(2012)- 한국 거주 전체 인구의 2. 87%

1. 이주의 여성화와 성별화된 이주방식

- * **이주의 여성화:** i) 양적 측면에서 여성들의 이주가 많음을 의미- 선진국 거주 이주민 중 약 51%가 여성(ILO, 2013)/ 필리핀 & 스리랑카 해외 취업자 중 70% 이상이 여성 ii) ‘동반 이주자’가 아닌 주체적 노동자 신분의 취업이주자가 많아졌음을 의미
- * **지구화가 국제이주에 미치는 영향**
 - i) 인식과 정보 측면: 정보 접근성 높아 쉽게 이주 선택할 가능성 높아짐
 - ii) 경제적 요인: 국가간 경제 격차 문제
 - iii) 국제적 네트워크: 연쇄 이주 확대
 - iv) 전 지구적 돌봄 결핍의 연쇄 현상

노인, 아동들을 돌보는 인원 부족 > 돌봄공백
이 문제를 현재 1세계 돌봄공백을 3세대 여성들이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중
이 때 3세계의 돌봄공백은 다시 더 낮은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맡게되는
악순환적 연쇄 발생

* 이주의 여성화 현상의 경제적 요인

- i) 개도국 남성들의 불안정적 취업 현상: 가구의 생계부양 책임지는 여성 증가
- ii) 유입국의 여성화된 직종(가사서비스, 돌봄노동 등) 증가-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

* **생존의 여성화**: 남반구 개도국 여성들이 북반구 선진국으로의 해외취업 과정을 지구화가 초래하는 경제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와 연관해 설명하는 개념(Sassen)

-> 생존의 여성화는 여성들에게 남성보다 불리/열악한 이주 조건 수용하도록 압박=> ‘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이동이 아니라 막다른 이동’으로서의 이주
1세대로 가는 3세대 여성들의 이주는 문화에 대한 동경, 여행등과는 다르게 생존을 위해서 간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.

* **전 지구적 돌봄 연쇄(global care chain)**: 선진국의 돌봄결핍을 개도국 여성들이 낮은 임금으로 해결하는 방법- 돌봄을 매개로 한 여성들의 연쇄적 이동 주목할 필요: 필리핀 어린이 27%가 엄마 혹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추정/ 스리랑카: 100만명 추정

* **돌봄 연쇄의 문제**: i) 돌봄 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개도국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 ii) 여성들의 임금은 최저수준으로 유지된 채 돌봄 노동 가치는 더욱 평가절하됨

* 돌봄연쇄 문제의 해결책(Hochschild, 2000)

- i) 서구 사회 내부의 성별분업 재편성- 남성의 자녀양육/가사노동 참여 확대 & 사회적 돌봄 확대
돌봄연쇄 >> 여성이 돌봄노동의 주책임자라는 인식을 바꿔야함. 또한 가정내에서의 문제라는 인식을 국가적인 문제라고 확대시켜 논의해야함
- ii)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
- iii) 공동체 형성 중요- 연대감/교섭력 향상

2. 국제성별분업과 섹슈얼리티

- 1) 국제 이주의 근본적 원인: 국가 간 불균형한 경제발전 & 국부의 차이
- 2) 이주여성들의 나라별 유형화
 - i) 생산직: 동남아 ii) 성산업: 필리핀, 러시아 iii) 식당, 가정부: 중국 조선족=> 직종별 국제성별분업 & 여성간 국제노동분업
- 3)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도 내국여성들과 이주여성 간의 국제분업 구조화·한국 여성이 꺼려하는 노동을 맡게 되는 여성간 노동 분업
한국시장에서도 가정부를 하는 등의 일을하면 시선을 곱게 두지않음
- 4) 이주여성들의 유입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직/간접적으로 노출 i) 산업현장에서의 성폭력/성희롱 ii) 성산업으로의 유입 iii) 매매혼적 성격의 결혼=> 섹슈얼리티라는 특수 조건을 매개로 한국 이주여성으로 정체화 & 남성들과 다른 환경/문화에 놓이게 됨을 의미

3. 국제결혼에서의 문화적 배제와 타자화

- 국제결혼의 배우자: 가부장적 문화 & 성역할의 국제적 편차에 직면하면서 타자화 과정을 겪음 & 언어소통의 문제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의 부적응 등으로 오랜 시간 고립됨
-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시집식구들의 차별: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국가차별 작용- ‘가난=야만/무지’라는 등식으로 받아들임 & 한국문화 일방적으로 강요

II.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과 젠더

노동자,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자

1. 신국제 노동 분업과 3세계 여성

- 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는 '생산의 세계화'로 인해 여성들이 단순직 노동자로 대규모 편입 -> 여성 프롤레타리아 형성
- => 신국제노동분업: 여성들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저임금화 & 3세계 여성들은 저임금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진출
- 다국적 기업 노동력 8-90%가 여성 -> 신국제노동분업:국제적 하청 형태 생산방식
- 신국제분업은 노동억압과 성억압을 작동원리로 활용 -> 3세계의 외국자본 유인전략: '성별'이미지 적극 활용 & 개발도상국정부: 자국 여성들의 온순하고 성적 이미지 선전& 자국의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싼값으로 거래되어야 할 상품으로 취급
- => 글로벌 생산체계: 글로벌 산업자본가와 3세계 여성노동자 계급 형성 초래 & 권력차이를 형성/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대 공모 구조

2. 국제 이주 노동과 서비스 계층의 ‘여성화’

- i) 국제이주노동: 인종적 특색에 의해 노동력의 가치를 판단하는 인종 차별적 생산 시스템의 성격 유지
 - ii) 국제 이주 노동의 성별적 특성
 - 가사노동을 비롯한 감정노동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: 국제이주노동의 ‘여성화’ -> ‘여성 하인 계급(female servant class)’의 가사 서비스 노동자 등장
 - ii) ‘이주의 여성화’: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공공복지 예산 대폭 삭감하는 결과 초래-> 서구 중산층의 ‘돌봄의 공동화’ 해결 위해 3세계 여성 노동력 사용
- => 서비스 분야의 이주노동자 증가는 새로운 계층분화 초래: serving class의 노동자 계급 vs 접대를 소비하는 부유 계급인 served class의 계급 이분화 형성(사센)

3. 글로벌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전망

- 글로벌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i)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확장 or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과 ii) 국제적 연대를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
-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시장 통제 기능은 약화but, 국가의 조정자 역할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=> 페미니스트 글로벌 정치학은 세계적 여성연대를 통해 각종 차별규약 철폐 or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 등을 통해 '지구적 지역(global) 정치학'을 실현

Global + local = glocal

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자의 역할로서
국가의 로컬리티를 어느정도 행사 해야 한다.